...제 1 부에 이어서)

개미발자국

제 2 부

22. 김인호 아파트 - 실내/아침

아침 6 시가 갓 지난시간,
살며시 엎드려 복도를 기어가는 김인호.
(아파트 복도의 자동 점등이 해제된 시간, 멀리서 감시하던 이들이 눈치 채지 못한다)

잠시 후,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김인호.
민정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문을 연다.
김인호가 허리를 숙인 체 급히 안으로 들어간다.
민정이 못 본 체 쓰레기 장으로 향한다.

CUT TO) 아파트 안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는 김인호.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이 깜박거린다.
김인호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바라본다.
놀라는 얼굴.

INSERT) 휴대폰 화면
낯선 번호의 부재중 전화 여러 통.

김인호가 발신 버튼을 누른다.
수화기 너머로 벨이 두 번 울린 후 연결된다.

명숙 엄마 **"날새, 명숙이 엄마..."**

김인호 (한동안 침묵, 작은 목소리로)

“네. 어머님“

이영숙 “어제 명숙이 전화 왔더군, 새벽에 말이야.
자네를 만났다고…

(잠시 침묵)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 하더군…
난 자네가 모두 다 예기한 줄 알았지.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정말 미안하네”

김인호 “… “

명숙 엄마 “다 예기했네. 내가 헤어져 달라 부탁했다고…
그리고 명숙이 동생, 상철이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

(잠시 침묵)
모두 다 네 탓이네.
많이 미안하고, 명숙이 한태도 내가 미안하지.
어쩌겠나. 지난 일인데,
명숙이가 많이 울더군. 자네 한태 미안하다고....
이 늙은이 용서해 주시게. 그리고 우리 상철이
살아났어. 기적적으로.
자네 덕분이야.”

김인호 “… “

잠시 뒤 ‘툭’하고 전화가 끊긴다.

INSERT - 몽타주) 첫사랑

1. 실험실

넓지 않은 실험실. 컴퓨터 화면 불빛만 켜져 있고, 기계음이 잔잔히 깔린다.
이명숙의 진지한 얼굴.

모니터를 주시하며 데이터를 확인한다.
그 뒤로 다가온 김인호.
장난스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린 뒤, 조심스레 안마해준다.
명숙이 돌아보며 작은 미소, 인호도 따라 웃는다.
누가 봐도 다정하고 편안한 두 사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2. 봄
명숙과 인호가 교정의 벚꽃 길을 걷는다.
그들의 어깨위로 꽃잎들이 흐드러진다.
친구들이 놀린다.

친구(OFF)　　"야, CC. 그렇게 좋냐."

명숙이 얼굴을 붉힌다.
인호가 어깨를 으쓱한다.

3. 카페 '아미고'
낡은 이름만큼 오래된 팝송이 흐른다.
구석진 자리, 희미한 조명아래.
명숙이 말한다.

명숙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아."

인호가 놀란 얼굴로,

인호　　"왜 무슨 일 있어?"

명숙이 창밖으로 간판을 바라보며,

명숙　　"이름이 너무 맘에 안들어"

인호도 간판을 쳐다본다.

INSERT) 카페 간판 '아미고' (스페인어, 친구)

인호가 웃는다. 명숙도 따라 웃는다.

3. 또다른 봄날 - 밤 - 달빛

늦은 밤. 인적 없는 벤치.
나란히 앉아 있는 둘 사이로 벚꽃 잎들이 떨어진다..
달빛은 시기하듯 시리게 뿌린다.
인호와 명숙의 눈빛이 마주친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진다.
첫 입맞춤.
떨어진 꽃잎이 눈을 가리자 마지못해 떨어진다.
고개를 숙이는 명숙,
김인호의 어색한 음색.

인호 **"달이 참 밝다."**

4. 낡은 거실, 조용한 오후.

김인호와 마주 앉은 명숙 엄마의 표정은 굳어 있다.

명숙 엄마 **"명숙 아빠의 주거래처, 제일산업 김 회장의 아들이**
명숙이를 원해.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무너져.
그리고… 명숙이 동생, 상철이 병원비를 댈
방법이 없어.
자네가… 자네가 포기해 주시게.
상철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나."

김인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한방울씩 눈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신다.

5. 헤어짐

캠퍼스.
인호가 휴학계를 낸다.
기차역, 플랫폼 너머 철길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인호.
기차가 다가온다.

그가 일어선다.
등에는 작은 백팩이 달려있다.

그의 오피스텔 문 앞, 매일 같이 찾아오는 이명숙.
아무 대답 없는 문.
문틈 사이로 전해지는 정적.
명숙의 눈에 고이는 눈물.

지방 어느 바닷가.
흐린 바다를 바라보는 김인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떨어지는 빗물이 눈물을 씻어 내린다.

6. 화려한 웨딩 홀
축하의 꽃다발과 밝은 조명이 가득하다.
신부 민정의 행복에 찬 얼굴.
그 곁에 선 김인호.
정장을 입고 있으나, 표정은 굳어 있다.
인호의 눈동자 안에, 객석 뒤편 구석자리, 북적이는 하객들 틈사이로 명숙의 얼굴이 살짝 비친다.
인호는 모른 척 천장을 쳐다본다.
눈가에 맺힌 이슬이 조명에 반짝인다.

7. 벚꽃 길
명숙이 혼자 걷는다.
꽃잎이 흐드러져 눈가로 떨어진다.
꽃잎을 치우는 손길에 눈물이 묻어난다.

명숙 (V.O.)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벚꽃 잎은 왜 이리 흐드러질까?”**

23. 브레인 픽스 - 실내외/아침

6개월간의 휴직이 끝난 첫 출근길.

브레인 픽스 정문 출입 게이트로 다가가는 김인호.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를 막는다.
보안 요원, 신분증을 확인한 뒤 잠시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잠시 뒤, 건물 안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온다.

여직원 **“김 박사님, 자리 새로 배정받으셨습니다. 따라오세요.”**

김인호, 말없이 그녀를 따라 걷는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공간.
벽에 노출된 파이프와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힌 복도를 걸어간다.
복도 끝, 낡은 금속 문 위에 적힌 글자.

「시료 저장실」

여직원이 카드키로 문을 연다.

거대한 창고 앞 10평 남짓한 사무 공간.
창문은 없다.
낡은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인다.
벽 너머 유리창 안쪽으로, 철제 선반 위에 줄지어 놓인 작은 냉동고들이 보인다.
‘웅웅—’ 일정한 기계음.
냉동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

테이블 하나, 의자 두 개.
마주보게 놓인 의자이지만, 테이블 위의 모니터가 얼굴을 가려준다.
테이블 위엔 낡은 전화기와 오래되어 보이는 관리 매뉴얼 뭉치.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문 가까운 의자에 이미 앉아 있다.
김인호가 들어가자 마지 못한 듯 일어서 인사하는 여직원.

여직원 **“어서 오세요. 김박사님. 김윤지입니다.”**

김인호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두꺼운 데이터 관리 가이드를 툭 하고 밀어놓는다.

여직원 **“책상위에 있는 것은 관리 매뉴얼이고**
지금 드린 것은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들입니다.
읽어 보시면 잘 아실거여요”

표정과는 달리 상냥한 말투.
상냥한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진 김인호.

김인호 **“반가워요. 자주 봐야 할 텐데. 잘 지내봅시다.**
어떻게 부를까요”

여직원 (깍듯한 존댓말에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냥 미스 김이라고 부르면 되어요”

살짝 웃는 여직원.

김인호는 첫 인상만 보고 판단했던 스스로를 나무라며 희미하게 웃는다.
낡은 의자에 몸을 기는 김인호.
*‘삐걱—‘*소리가 크게 울린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이드를 펼친다.
모두 반복적인 내용들.

김인호는 별다른 표정이 없다.

그렇게 매일 가이드만 들여다본다.
다만, 하루 서너 번 긴 복도를 건너 밖으로 나간다.

김인호 **“미스 김.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복도를 걷는 김인호.
마주치는 직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
직원을 따라가는 그의 시선.
다만, 그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러운 곁눈질이다.
투명한 창문 너머 연구실도 슬쩍 너머다 본다.

연구원들의 표정을 살피는 김인호의 눈.
누가 보면 얼른 고개를 돌린다.
마주치는 보안요원들에게도 시선을 고정한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행동이다.

CLOSE UP) 핸드폰
핸드폰을 꽉 쥔 오른손.
측면 버튼을 누른다.
이내 손을 뗀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온다.
표정이 심각하다.
김인호는 "미스 김 나 왔어요"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심각해지는 표정.
곧이어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한다.

INSERT) - 메모
노트 속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흐릿한 글씨와 기호들.
α-03 / 17:42 / "BLANK 2.7s" → pupil ⌀↓
Δ-07 / 저녁-퇴근길 / ph. call(???) 후 표정 matrix 변경 / baseline ≠
χ-12 / 회의실 5B / 목 움직임 - 각도 18° 고정 / speech freq. 끊김
Φ-21 / cafeteria / 왼쪽 눈 깜박 없음(∅) / laugh pattern = copy/paste
Λ-33 / login 기록 / 동일 아이디 02:11, 02:13, 02:15 반복 → shadow login?
Ω-47 / corridor / 발자국 소리, 무게감 변동 없음. but 작은 비틀림 ≠

페이지에는 점, 화살표, 원과 선이 얽힌 작은 다이어그램이 빼곡하다.
난수 조합으로 보이는 기록들.
김인호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

그가 기록을 마치고, 다시한번 자신의 기록을 살핀다.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진다.

슬쩍 쳐다보는 미스 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눈길은 모니터와 손거울을 반복하며 오간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INSERT) 달력

벽에 걸린 달력 장면.

페이지가 바람에 휘날리듯, 빠르게 지나간다.

2043년 → 2044년 → 2045년

마지막 장이 멈춘다.

2045년 - 8월

24. 부부의 거실 - 실내/밤

테이블 위의 한통의 광고문.
그 위에 선명히 새겨진 문구.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제네시스 New Life Initiative”

INSERT) 광고문 중 안내문
「설명회 안내」
날짜 : 2045. 07. 21 02 : 00 PM
장소 : 제네시스 소강당
참석 대상자 : 신청자 중 참가 통보 받으신 분
연락처 : 0770 45177399

마주보는 두 사람.
김인호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아내의 눈가에 천천히 맺히는 눈물.
잠시의 정적.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인다.

25. 제네시스 소강당 - 실내/낮

넓지 않은 공간.
소극장처럼 꾸며진 아담한 홀.
세련된 조명이 벽면을 따라 은은하게 흐른다.
매끈한 금속과 유리 소재가 어우러진 인테리어,
마치 미래도시의 실험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잔인한 운명을 위로하듯 쇼팽의 '녹턴'이 잔잔히 흐른다.)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
스크린에는 유기적인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홀로그램,
뇌 신경망을 닮은 빛의 파동이 반복적으로 맥동한다.

벽면 보조 스크린에는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영상 -
"새로운 기억, 새로운 궤적, 새로운 삶"
문구에 이어,
- 도시 전경
- 미소 짓는 가족들
-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들이 이어지며 반복된다.

벽면엔 '*GENESIS - New Life Initiative*' 라는 문구가 홀로그램처럼 빛난다.

CUT TO) 출입문 입구
입구 쪽-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인호 부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면,

앞줄의 중년 남성, 그는 곱사등이다.
두 자리 건너, 휠체어에 앉은 소녀와 그 부모…
뒷줄의 몹시 야위고 창백한 얼굴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그는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다.
두 손을 잡고 있는 늙고 병들어 보이는 부부.

30여 명 남짓한 참석자들이 서로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다.
어떤 이는 절망이,
또 어떤 이는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앞쪽을 주시한다.

보기에도 모두가 절실하다.

김인호 부부가 무대 앞쪽의 빈자리로 다가가 천천히 앉는다.
아내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든다.
남편은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 위를 슬쩍 더듬는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두 손을 꽉 낀다.

잠시 뒤,
"웅…" 마이크를 켜는 전자음
홀 안을 흐르던 음악이 꺼진다.
무대위의 스크린도 꺼진다.
벽면의 홍보 영상도 꺼진다.

이어 스크린이 밝아지며 한가운데에 새로운 형상이 떠오른다.

두 개의 원뿔체.

꼭짓점이 서로 맞닿아 상하로 대칭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

맞닿은 꼭지점에서부터 위와 아래로 뻗은 가느다란 흰 줄기.
줄기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미세한 빛 알갱이들이 이어진 흐름처럼 보인다.
원뿔체 전체가 서서히 회전한다.
그 회전은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시간 자체가 회전하는 듯한 착시를 불러온다.
청중석, 숨죽인 눈빛들이 스크린을 응시한다.
누군가는 낮게 속삭인다.

정중 (OFF) (작은 목소리) **"…민코프스키의 시공간 다이어그램."**

DOLLY IN)

원뿔체가 확대되며,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원뿔체는 압도적인 장관으로 관중을 압도한다.

CUT TO) 무대 위 - 윤정우

무대 뒤 커튼을 열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중년 남자.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어 의사임을 알린다.
단정한 외모, 날카로운 눈빛.
무대 중앙에서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둘러본다.
고개를 숙인 뒤 무대 왼쪽의 연단 앞에 선다.

윤정우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번 프로토콜을 책임지고 있는 윤정우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 새출발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세계최초의 기술이
적용된 "5차원 메모리 플레인'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정우가 스크린을 바라보며 설명을 잇는다.

윤정우 **"4차원 시공간 구조입니다. 민코프스키의 시공간**
다이어그램과 많이 닮았죠?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존재하는 현재가 꼭짓점에서
맞닿아 있지요.
빛나는 흰 줄기는 존재의 궤적을 의미합니다.
위로 뻗는 줄기는 앞으로의 가능성,
아래로 이어지는 줄기는 이미 지나간 흔적을
가리킵니다.
'5 차원 메모리 플레인' 은 존재의 궤적을
변경시킵니다."

윤정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이 전환된다.
넓은 스크린 위로 흰색 평행선이 뻗어 있다.
선의 양쪽 끝에는 노란 원이 자리한다.

그리고 중앙에는 분홍점이 희미하게 맥동한다.

윤정우가 천천히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킨다.

윤정우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위의 흰색 평행선은 4 차원의 시간 좌표입니다.
왼쪽 노란 원은 출생 시점, 그리고 오른쪽 노란 원은
현재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기, 별처럼 빛나는 푸른 원—
그것은 바로 ‘사고 순간’의 존재 좌표입니다.
중앙의 분홍점은 특정 과거 시점의 존재를 뜻하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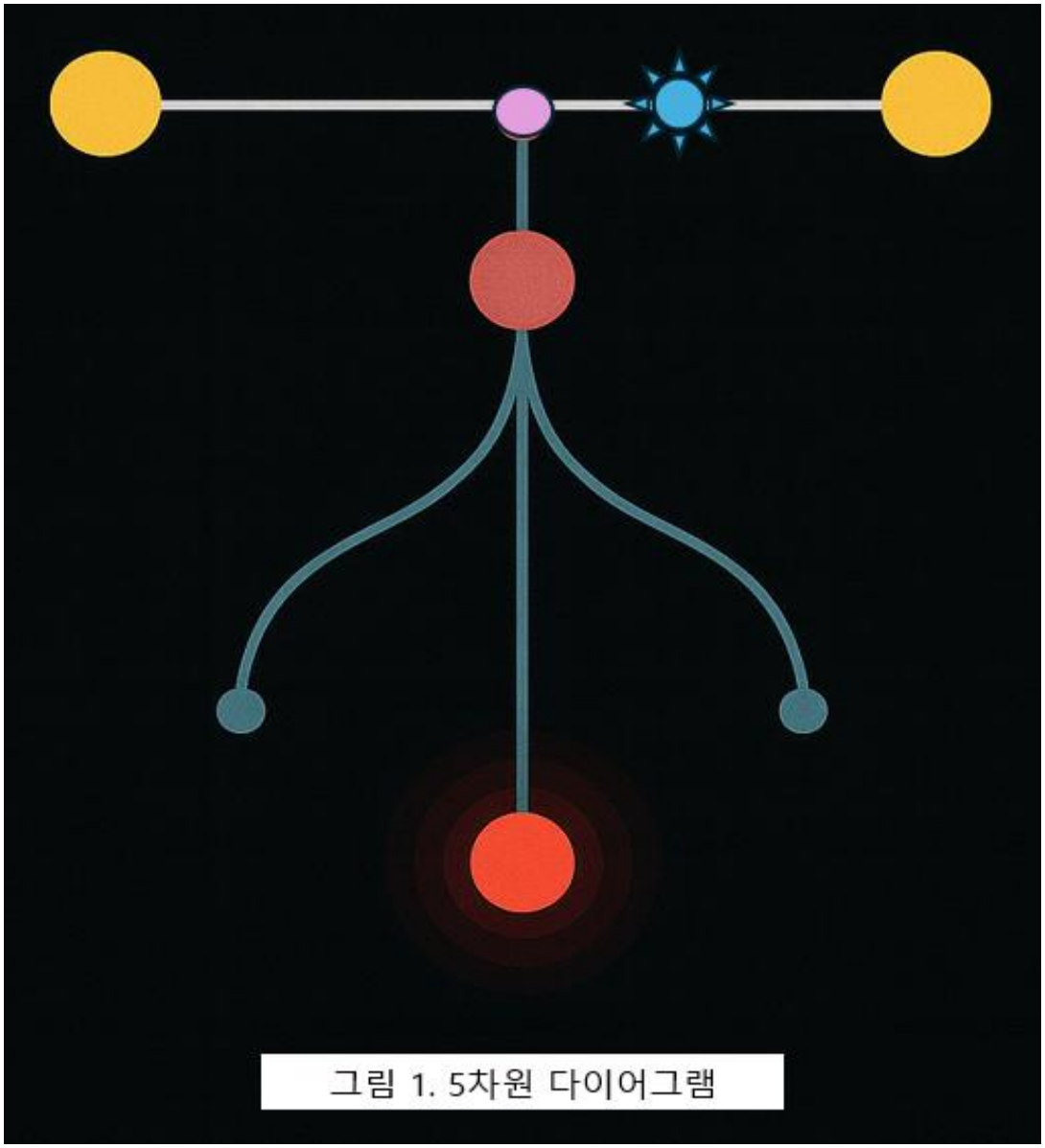

그림 1. 5차원 다이어그램

카메라가 분홍점을 클로즈업한다.

분홍빛이 서서히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며 심장처럼 맥동한다.

윤정우 **“부연하면… 사고 이전 시점에서 존재의 기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달라지면 육체의 반응이 바뀌고, 변화된 반응은 새로운 시공간에서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분홍점에서부터 가지가 아래로 뻗어 나가며 새로운 우주들이 형성되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투영된다.

청중은 숨죽인 채 그 빛의 흐름을 바라본다.

윤정우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분홍점입니다.**
이 좌표에서 어떻게 가능성의 세계로 존재를
올려놓느냐.
그것이 우리의 연구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다이어그램을 확대한다.

분홍 점 주변의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처럼 흘러내린다.

윤정우 **“존재는 데이터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좌표에서의**
존재 역시 그 순간의 데이터로 환원될 수 있지요.
삶의 다른 궤적이란 결국…
데이터가 변조된 존재의 궤적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변조는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 지으며)
“하지만 전체를 변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리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바로 기억을 변형하는 것.
기억이 바뀌면 존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시공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때, 말을 이어가던 윤정우가 갑자기 멈춘다.
입술이 열린 채로 굳어버린다.
허공에 내밀었던 손도 그대로 멈춰 있다.
눈동자는 정지된 화면처럼 고정된다.

마치 스크린이 멈춘 듯한, 불가능한 정지.

0.7 초의 정지.

청중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한다.
단지 짧은 숨 고르기 정도로만 보인다.
하지만 앞줄 몇몇은 이질감을 느낀다.
어떤 이는 눈을 비비며 자신이 순간 착시를 본 줄 안다.
다른 이는 동공을 크게 뜬 채, 강단 위를 주시한다.
공간은 여전히 고요하다.
그러나 그 0.7 초.
김인호가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INSERT) 김인호의 오른손 - 조금 전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는 김인호의 오른손.

잠시 뒤, 측면 버튼 세 개를 동시에 누른다.

휴대폰 화면이 은은하게 켜진다.

케이스 안쪽 필름 장치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지향형 전파 방해기 작동 - 윤정우 주변 반경 3미터안의 신호 차단)

(짧은 정적)

버튼에서 손을 떼는 김인호.

휴대폰 화면 꺼지면; (전파 방해 해제)

카메라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김인호를 잡는다.

김인호 (V.O.)　　"뇌…기계 하이브리드가 틀림없군"

INSERT) 전자기기 수리 점 - 밤

상가 2층, 좁은 긴 통로.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은 전자기기 판매점들, 그리고 수리점들.

통로 끝 유난히 허름하고 좁은 전파기기 수리 점 안.

젊은 수리공이 눈에 확대경을 달고 앉아 있다.

책상 위 거치대에 놓인 분해된 휴대폰.

작은 도구를 들고 휴대폰을 수리하는 정밀한 손.

그의 등 오른쪽 한발짝 뒤에서 김인호가 서서 지켜보고 있다.

잠시 뒤,

휴대폰 커버가 닫히고 본래의 모습을 갖춘다.

의자를 돌리고 김인호를 바라보며,

수리공 **“다 되었습니다.**

(휴대폰 측면 버튼을 가리키며)

“여기 버튼 세개를 동시에 누르셔야 작동됩니다.

필림형 전파 방해기는 커버 뒷면에 부착되었고

지향성 안테나는 핸드폰 전파 발생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습니다.

유효거리는 1미터 부터 15미터까지입니다.

밧데리 용량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15미터에서 반경 3미터 정도로 반경이

좁은 점 고려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허가 없는 전파방해기 사용은 처벌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CUT TO) 김인호

아내를 돌아보는 김인호.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스크린 불빛을 받아 반짝인다.

아들의 새출발을 향한 기대의 눈물.

김인호,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솟아오른다.

3년 전, 잊을 수 없는 순간.

INSERT) 브레인 픽스 연구실

정지된 화면.

심우정 연구소장이 멈춰 서 있다.

김인호 (V.O.) **“내 눈에 잡힌 저 장면 하나…**
그 순간부터 나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지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CUT TO) 윤정우

0.3초 뒤

윤정우의 입술 다시 움직인다.

윤정우 (계속)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유전자 결함으로 평생 고생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하게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가위, 즉 크리스퍼(CRISPR) 기술을 접목하여,
태아의 세포 분열 단계에서 정상 유전자로 환원이
가능하지요.
물론, 기억 변형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잠시 침묵)

“그리고…
‘5 차원 메모리 플레인’.
이 기술은 첨단 AI 와 양자 과학 그리고 뇌 과학이
융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기술적 원리를 다
설명하려면 며칠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리보다는 단순한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우가 리모컨을 누른다.
뒤 스크린이 부드럽게 전환된다.

윤정우 (계속) “다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한 생명.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생생한 증거를 지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웅-”
저주파 진동음이 공간을 깊게 울리고,
거대한 스크린이 하나씩 꺼져간다.

어둠 그리고 정적.
어디선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억지로 삼킨 침 소리.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잠시 뒤, ‘
천장 극점에서 작은 빛이 비친다.
거미줄처럼 가늘고 희미한 두 줄기 빛. 천천히 공간을 가르며 내려온다.

빛은 점차 두터워지고, 흩날리는 입자들이 하나 둘 채워지더니 곧 완전한 두 개의 홀로그램을 형성하면,

곧이어 왼쪽 홀로그램 – 흰빛으로 가득한 병실.
창백한 아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다.
앙상한 팔, 힘겹게 오르내리는 마른 가슴.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다.

머리맡 모니터,
불규칙한 파형이 불안하게 깜박인다.
‘삐– 삐–’
끊어지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린다.

동시에 오른쪽 홀로그램 – 푸른 잔디밭.
병상의 아이와 닮은 또 다른 아이가 보인다.
조금 어리게 보이는 모습.
건강하게 붉은 뺨,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는 머리칼.

아이는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달린다.
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새소리, 바람 소리, 따뜻한 숨결이 배경을 메운다.

이때 하이파이 스테레오 음향이 공간을 울린다.
왼쪽 – 삐걱거리는 기계음과 불규칙한 신호음.
오른쪽 – 아이의 웃음, 새소리, 바람 소리.
두 세계가 극명하게 대비한다.

곧이어.
빛이 서서히 흐려진다.

병실도, 잔디밭도, 아이의 웃음소리와 기계음도 함께 사라진다.

잠시 뒤,
천장의 조명이 순차적으로 켜진다.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지며 건강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천장의 조명이 완전히 켜지며 공간이 다시 빛을 되찾는다.

TRACKING) 카메라가 앞줄에서 뒷줄로 천천히 이동하면,
관객들의 얼굴이 하나씩 드러난다.

앞줄 중년 부부,
아내, 충격에 손으로 입을 막는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눈가가 젖어 든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 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꺼져버린 홀로그램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두 번째 줄 노인,
깊은 주름에 경계심이 가득 서린 얼굴.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젓는다.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노인 (작은 목소리로) **“저건… 꾸민 거야… 저건…”**

주변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줄 젊은 부부,
입을 굳게 다문 채 스크린을 응시한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카메라 멀어지며,
객석 전체를 비춘다.

적막에 잠긴 공간,
기침 소리 하나,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진다.

CUT TO) 윤정우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향한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윤정우 **“방금 여러분이 본 것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1년 전, 저희 랩을 찾았던 고객의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과거로 돌아가 다시 설계된 아이는…
지금 저렇게 밝고 건강하게 새로운 궤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낮아진 목소리, 압박감 있게)
“이것이 앞서 설명 드린 제네시스의 ‘5차원 메모리 플레인’이 만든 기적입니다.
양자 통신으로 다른 궤적에 존재하는 삶의 데이터를 받아, 눈앞에 재현한 것입니다.”

(짧은 침묵)

청중, 숨죽인 채 경청한다.

윤정우의 등 뒤 스크린에는 잔디밭 위에서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아이는 부서져 내리는 햇살 속에서 관객들에게 맑은 웃음을 던진다.

윤정우가 천천히 스크린을 돌아본 뒤 다시 청중을 둘러본다.

윤정우 (자신감에 찬 목소리)
“방금 보신 저 아이의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그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적)

조심스러운 박수가 한나 둘 터져 나온다.
이내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환호와 박수가 공간을 채운다.

(직원 두 명이 무대 왼쪽의 단상을 중앙으로 옮긴다)

무대 뒤에서 두 남녀가 조심스레 걸어 나오면,
먼저 단상 앞에 선 아이 엄마,
그녀가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아이 엄마 **“저는 인철이 엄마, 송민순입니다.”**

청중석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온다.
곧이어 흩어진 손뼉 소리가 홀 안을 메운다.

엄마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자, 아이 아빠가 앞으로 나선다.
마이크 앞에 다가선다.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들린다.

아이 아빠, 마이크를 쥔 채 청중을 바라본다.
목소리는 조금 떨리지만 단호하다.

이낙훈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인철이 아빠, 이낙훈입니다.
꼭 1년 전, 저와 아내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낮게)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존재의 재설계’라니… 공상 같았죠.

하지만 아이는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과거를 떠올리듯)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술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궤적에서 살아 있다는 것을.”

(마이크에 몸을 기울이며, 힘주어)

“제네시스의 AI, 양자공학, 그리고 뇌 과학.

그 결합이 만들어 낸 결과가 ‘5차원 메모리 플레인’입니다.

덕분에 제 아들은 지금도 저기, 스크린 속에서 보았듯이…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INSERT) 김인호 부부

“뇌 과학” 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인호의 동공이 크게 확장된다.
몸이 움찔한다.
아내는 눈치를 채고 인호를 쳐다보며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아내 (속삭이듯)

“여보…”

김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보낸다.

CUT TO) 무대 위 - 이낙훈

이낙훈(계속) **“여러분이 보신 저 영상은 제가 양자 통신으로 직접 받아온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잠시 긴 침묵,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픈 아이가 다른 세계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청중을 향해 고개 숙이며)

“부디 여러분 에게도 그 같은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는 말을 멈춘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무대 조명에 반짝인다.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오른손으로 눈가를 훔친다.

마침내 그는 청중을 향해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한다.

PAN) 청중석
청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따라 움직인다.
조용한 박수가 몇 차례 터져 나오고, 서서히 박수는 잔물결처럼 번져간다.

그는 무대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CUT TO) 김인호 부부
민정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에 반짝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인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친다.

김인호는 잠시 짧은 미소를 보낸다.
그러나 곧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다.

김인호(V.O.) **“나는 뇌 과학자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조차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쁨과 희망에 가득 찬 나의 아내.
그리고 바로 옆, 절망을 이겨내려 애쓰는 수많은 이들.
그들의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릴 자격이 없다.”

CUT TO) 윤정우
아이 아빠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자, 윤정우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둘러본다.

윤정우 **“방금 보신 장면은 이낙훈 박사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헌신 덕분에, 단 몇 분 동안이나마
아이와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언제든 새로운 존재와 만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청중을 천천히 둘러본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신청하셔도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처음, 증거도 설명도 부족했을 때,
저희를 믿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분들께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조금 밝은 톤으로)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입구문을 가리키며)
“입구 쪽 대기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고개 숙여 인사)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정우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무대 뒤로 걸어 나간다.

소강당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
곳곳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
주고받는 조용한 대화들.
관객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난다.
몇몇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서둘러 출구 쪽으로 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누며 여유 있게 움직인다.

CUT TO) 김인호 부부
주위를 살피는 김인호 부부.
아내가 그의 팔을 살짝 끼고 살짝 올려다본다.
그녀의 얼굴 피어난 맑은 미소.
인호가 그녀를 바라본다.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관객들이 거의 모두 빠져나가고, 비어가는 강당의 앞자리에 남은 마지막 두 사람.
나란히 발걸음을 옮겨,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출구를 향한다.

26. 제네시스 소강당 대기실 - 실내/낮

오늘 본 얼굴들로 북적이는 대기실 주변.
넓지 않은 공간. 다섯 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대기실은 이미 꽉 찼다.
앞줄 의자들도 꽉 찼다.
좁은 복도에도 사람들로 가득하다.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이들, 볼펜을 쥐고 무언가를 메모하는 이들.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림, 기침 소리, 누군가가 만드는 미세한 소리들.

복도를 따라 진 청색 제복 차림의 여직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다.
단정한 머리 모양, 균일한 미소.
마치 서로 닮아 있는 듯, 표정과 제스처까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방문자들에게 신청서를 건넨다.
볼펜까지 함께,

TRACKING) 카메라가 부부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
두 사람은 줄을 따라 전진한다.
곧 인호의 손에 놓이는 흰색 서류와 볼펜.
인호를 쳐다보는 아내의 미소.
그러나 인호의 굳은 얼굴.
부부가 복도 한쪽 빈의자로 걸어가 나란히 앉는다.
김인호가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서류를 건넨다.
아내는 서류를 펼치며 남편을 흘깃 바라본다.
그 순간 인호가 입꼬리를 올린다.
아내가 고개를 돌리자, 바로 무표정해지는 인호.
깊은 불만이 배어 있다.

CLOSE UP) 민정의 놀란 표정
민정의 눈동자에 손에 들린 신청서가 비친다.

'새출발(New Life Initiative) 참가 신청서'

종이를 붙잡은 손끝.
미세하게 떨린다.

INSERT) 신청서 - 한쪽 칸의 선명한 활자.

[COST BREAKDOWN]
SERVICE PACKAGE: New Life Initiative (Standard Plan)
Base Technology Fee ..... 450,000 US$
Neural Data Synchronization ..... 220,000 US$
Cellular Reconstitution ..... 180,000 US$
Immune System Stabilization ..... 120,000 US$
Psychological Calibration ..... 95,000 US$
Post-CUT Toleration Monitoring (1yr). 65,000 US$

TOTAL PRICE: 1,200,000 US$
CATEGORY: Human Body

서류를 덮으려는 민정의 떨리는 손.
종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흔들린다.

아내의 손 너머 서류로 떨어지는 인호의 눈길.
눈빛이 굳어지며 잠시 정지한다.

민정은 인호가 눈치 챈 것이 아닌지 슬쩍 쳐다본다.
모른 척하는 인호.
민정이 인호의 무표정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조용히 신청서를 가방속으로 밀어 넣는 민정.

그녀가 의자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옆자리의 인호가 놀라 눈길을 준다.

인호 (작게, 당황하며)
"왜 그래요…?"

민정 (서둘러, 둘러대며)
"…공기가 좀… 답답해서.

인호도 민정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카메라가 조용히 대기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자들 사이로 태연한 척 복도를 빠져나가는 부부의 뒷모습을 잡는다.

출구… 민정의 밝은 표정.

민정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 혼자 너무 오래 둔 것 같아서…”

인호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우선 집으로 갑시다.”

제복을 입은 여직원이 두 사람을 흘끗 바라보지만, 곧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김인호 부부가, 대기실을 나간다.

27. 침실 화장대 - 실내/밤

화장대 위 거울에 비친 민정의 얼굴.
희미한 조명에 비쳐진 얼굴, 눈가가 젖어 있다.
흐느낌은 들리지 않는다.

잠시 뒤 뺨을 따라 흘러내리는 눈물.
민정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본다.
초점 잃은 시선.

CLOSE UP) 화장대 위 신청서

맨 끝장의 비용 견적서가 펼쳐져 있다.

INSERT) 비용견적서

[COST BREAKDOWN]
SERVICE PACKAGE: New Life Initiative (Standard Plan)
Base Technology Fee ..... 450,000 US$
Neural Data Synchronization ..... 220,000 US$
Cellular Reconstitution ..... 180,000 US$
Immune System Stabilization ..... 120,000 US$
Psychological Calibration ..... 95,000 US$
Post-CUT Toleration Monitoring (1yr). 65,000 US$

TOTAL PRICE: 1,200,000 US$
CATEGORY: Human Body

그녀는 신청서를 들어 올려 눈앞에 가까이 가져온다.
활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한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 빛에 반짝인다.

김인호 (OFF) (거실에서)
"당신, 어디 있어요?"

민정은 깜짝 놀란 듯 눈물을 닦아내고, 거울을 똑바로 바라본다.

민정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민정은 급히 표정을 고쳐 본다.
입술을 다물고, 눈가를 닦아내며 억지로 평정을 되찾는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거울을 다시 한번 스쳐 본 뒤 조용히 방 밖으로 걸어 나간다.

CUT TO) 거실

침실에서 걸어 나오는 민정.
서서 기다리던 인호가 곧장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다.

(잠시, 정적)

인호가 민정의 손을 이끌고 아이의 방을 향해 발길을 돌린다.

CUT TO) 아이의 방
작은 침대에 누운 아이.
불규칙하게 들썩이는 가슴에 맞춰, 옆의 모니터 그래프가 불안하게 요동친다.
창가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에 비치는 아이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

나란히 침대 곁에 앉는 부부.
잠시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를 마주본다.

인호가 아내의 손을 다시 잡는다.
민정의 눈가에 고인 눈물.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낸다.

김인호 **“우리 민수… 새로운 삶을 주도록 합시다.”**

순간, 흔들리는 민정의 눈빛.
놀람과 당혹이 선명하다.

민정 (떨리는 목소리)
“아니… 비용이…”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김인호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 정리하고…
예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남편의 가슴으로 쏟아지는 민정의 상체.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들썩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등을 토닥인다.
달래려는 듯, 다독이려는 듯.

INSERT - 몽타주) 이사 전경

1. 부동산 사무실 - 실내/낮
김민정이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계약 도장이 '꽝' 하고 찍힌다.

2. 아파트 단지 - 실외/낮
이삿짐 차량, 커다란 상자를 옮기는 짐꾼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민정의 눈동자.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들.

3. 새 집 - 실내/낮
작지만 아늑한 집.
박스들이 거실에 쌓여 있다.
민정과 인호가 하나씩 풀어내며 가구를 제자리에 놓는다.
민정이 옷가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열고 가지런히 정리한다.
인호는 작은 책장을 조립하고, 벽 한쪽에 아이의 장난감을 올려둔다.

4. 새 집 거실 - 실내/낮
공간이 집 다운 형태를 갖추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온다.

카메라가 거실에 새로 놓은 거울에 비친 부부의 웃음 띤 얼굴을 확대한다.

28. 제네시스 - 실외/아침

서울 한복판.
거대한 유리돔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인다.
건물 전면, 수십 미터 길이의 LED 파사드.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빛을 흩뿌린다.

LED 파사드 텍스트

"NEW LIFE INITIATIVE - 새로운 인생을 설계합니다."

정문 앞, 검은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 두 명.
손목에 장착된 생체인식 스캐너가 은빛으로 반짝인다.

휠체어를 밀고 정문 앞으로 다가오는 김인호, 나란히 걸어오는 민정.
담요에 덮인 아이의. 창백하게 여윈 얼굴.
아내는 가방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문 채 걷고 있다.

보안요원 "신분증과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인호, 스마트폰을 내민다.
보안요원이 QR코드를 스캔한다.
정문 옆 강화유리문이 천천히 열린다.

CUT TO) 로비

로비 중앙, 30미터 높이의 시야를 압도하는 아트리움.
천장에서 매달린 유리 구체들이 천천히 회전하며 황금빛 선을 흩뿌린다.
그 빛줄기들은 공중에서 얽히고 엉켜 신경망처럼 살아 움직인다.
리셉션 데스크 뒤, 진 청색 제복을 입은 여직원 두 명.
휠체어를 밀고 다가가는 김인호 부부.

**여직원 1. "김인호 박사님, 환영합니다.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바닥 중앙, 얇은 빛줄기가 길게 뻗어 있다..
안내선인양 부부가 휠체어를 밀고 여직원을 따라간다.

CUT TO) 상담실

넓은 공간.
한쪽 벽 전면 통 유리 너머로 보이는, 회색 빛 하늘과 빌딩 숲.
반대편 벽 전체를 채운 곡면 스크린.

스크린 속, 거대한 3D 뇌 이미지가 서서히 회전하고 있다..
잔잔히 번쩍이는 시냅스들이 은하수처럼 흩뿌려진다.

탁자 위에선, 투명한 인터페이스 패드가 은빛 빛을 내며 대기 중이다.
상담사. 흰색 가운, 단정한 자세.
의사 같다.

상담사 **“어서 오세요.**
‘뉴 라이프 이니셔티브’ 는 기억과 신경 패턴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식이 머물던 좌표를 옮기고, 시공간 궤적을 다시 설계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묵묵히 듣고 있는 김인호와 민정.
상담사의 손끝이 패드를 스친다.
스크린 속에 떠오르는 아이의 현재 뇌 파형.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붉은 점들이 깊게 난 골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난다.
일부는 끊겨 있고, 일부는 미세하게 왜곡되어 있다.

상담사 (차분히)
“아드님의 진료기록에서 가져온 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의 건강한 시절로 되돌려,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실린 아이를 바라보는 민정.

그 순간,
유리창을 스치는 헬리콥터 그림자.
희미하게 들리는 회전날개 소리.
거대한 그림자가 부부의 얼굴 위를 지나간다.

(잠시 침묵)

상담사 (차분히)
“오늘 예약하셔도… 1년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김인호 부부, 서로를 바라본다.

(잠시 침묵)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상담사가 서류를 꺼내 탁자 위로 민다.
김인호와 아내가 서류를 찬찬히 넘기며 빈칸을 모두 채운다.
곧이어 상담사에게 서류를 건넨다.
상담사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패드를 들어 툭툭 입력한다.

벽쪽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인쇄된다.

상담사 (청구서를 건네며)
“예약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금만 하시면 진행 시작합니다.”

INSERT) 납입 청구서
〔납입 청구서〕
서비스 패키지: New Life Initiative (스탠다드 플랜)
기본 기술 비용 ..... 450,000 달러
신경 데이터 동기화 ..... 220,000 달러
세포 재구성 ..... 180,000 달러
면역 체계 안정화 ..... 120,000 달러
심리 보정(캘리브레이션) ..... 95,000 달러
사후 통합 모니터링 (1년) ..... 65,000 달러

총 비용: 1,200,000 달러(한화 15억 6천만원 정)
구분: 인체

청구서를 받아 드는 민정의 떨리는 손.
인호를 쳐다본다.

못 본적, 민정의 눈길을 피한다.

김인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가 아내의 손을 잡고 급히 일어선다.

29. 김인호의 집 - 실내/새벽(1개월 후)

흐릿한 조명.
침대위에 누워있는 여위고 창백한 아이.
아이의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하다.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동이 삐죽삐죽 끊겨 올라간다.
불안하게 깜빡이는 빨간 불빛.

민정이 침대 곁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바라본다.
민정의 불안에 가득 찬 얼굴 표정.
이마에 송송 맺힌 식은땀이 흐린 불빛을 반사한다.

옆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는 인호.
그녀의 눈빛에 어린 두려움과 조급함.

아내 (겁에 질린 목소리)
“인호 씨… 제발 무언가 해야 해요. 더 기다리면…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
인호는 굳은 표정.
깊은 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잡는다.

김인호 (조심스럽게)
“…내일… 부탁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내 (고개를 저으며)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전화로도,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요.
의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우리만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게 맞나요?”

인호가 눈을 감는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속을 파고든다.

김인호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인호의 흔들리는 눈동자.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는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선을 떨군다.
인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말한다.

아내 **“…나, 무서워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마치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서.”

인호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는다.
떨리는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낮게 되 뇌인다.

김인호 (자신을 다독이듯)
“아니어요. 아직 아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30. 브레인 픽스 시료 저장실 - 실내/다음날 아침

미스 김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용한 공간, 서버 팬 돌아가는 나지막한 소리,

김인호가 핸드폰을 든다.
번호를 누른다.
수신음 두 번.

친구 (OFF) (수화기 너머로)
"김 박사, 웬일이야?"

김인호 **"부탁 좀 하세… 민수 말이야. 자네 회사 '뉴라이프 이니셔티브' 신청했는데…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예약 날짜까지는… 버티기 힘들 것 같네."**

친구 (OFF) (수화기 너머로)
"…알아볼게. 아들 이름, 민수 맞지? 곧 연락 줄게."

INSERT) 벽시계 - 한 시간이 흐른다.

핸드폰 벨이 다시 울린다.
김인호, 급히 전화를 받는다.

친구 (OFF) **"…미안하네. 빨라도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네. 다들 줄 서 있고… 원장도 힘을 못 쓴다더군. 신청자들이 다들 쟁쟁해서 말이야."**

김인호 (애원하듯)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친구 (OFF) **"더 알아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 꼭 힘내게."**

뚝-
전화가 끊긴다.

김인호의 절망에 빠진 표정.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댄다.

(한동안 정적)

적막을 깨고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린다.
김인호는 휴대폰을 집어 든다.
스크린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다. .

김인호 (힘없이)
"…네, 김인호입니다."

여성 (OFF) (수화기 너머로, 밝고 또렷한 목소리)
"김 박사님이시죠?
아드님 김민수 군, 새출발 날짜를 일주일 후로
앞당깁니다.
윗선의 결정입니다.

뚝-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전화가 끊긴다.

곧이어 문자 알림이 뜬다.

INSERT) 휴대폰 스크린.
「예약일: 2045.11.08. 09:30 AM
New Life Initiative - 제네시스」

한동안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는 김인호.

희미한 미소.

이내 찌푸려지는 이마.

김인호 (V.O.) **“윗 선…**
내 윗선은 3년 전에 이미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윗선은 누구란 말인가.”

31. 시 외곽 농막 - 실내/저녁

외진 골목.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끝.
붉은 지붕의 작은 농막이 보인다.
문을 열면…
두꺼운 유리 칸막이와 소독 장비, 크린룸이 자리한 은밀한 공간.

테이블을 두고 흰 가운을 입은 김인호와 이명순이 마주 앉아 있다.
인호가 입을 뗀다.

김인호 **“3일 뒤 아침 10시야. 그들은 분명히 나의 뇌를**
가져갈거야. 오늘 밖에 시간이 없어”

이명순 **“준비되어 있어. 오늘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어.**
설계는 완벽해. 예상대로 라면,
바이러스가 1년 뒤 발현될 거야.

김인호 **“그럼 시작하자… 많이 고마워.**

이명순 **“아니야. 내가 고맙지,**

(침대를 가리키며)
누워… 시작할께”

김인호가 천천히 침대로 오른다.

32. 제네시스 - 실내외/아침(일주일 후)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한 이른 아침.
거대한 제네시스 건물 입구 유리문 앞에 멈춰서는 김인호 부부.
고개를 들어 올리면,
유리문 위의 거대한 로고.

『GENESIS KOREAN LAB』

금속 광택이 반짝이며,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난다.

부부에게 다가오는 검은 제복의 보안요원.
간단한 확인 절차 후, 부부와 휠체어에 앉은 아이를 유심히 바라본다.

'칙-' 낮고 기계적인 소리
문이 양쪽으로 열린다.,
부부가 휠체어를 밀며 문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로비.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이며, 천장 끝까지 이어진 투명한 유리벽으로 쌓인 공간.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이 차갑게 반사되어, 공간 전체가 빛난다.

리셉션 데스크 뒤에는 진 청색 제복을 입은 여직원 두 명.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 균일한 미소.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부부와 아이에게 향한다.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며, 로비의 한가운데를 지나 데스크로 다가가는 김인호 부부.

카운터 앞에 발을 멈춘다.
진 청색 제복을 입은 여성 직원이 예약을 확인한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넨다.

여직원 (정중히)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부부가 나란히 로비 한쪽에 마련된 데스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한다.

부모의 출생지, 병력, 유전적 이력, 아이의 상세 데이터…
마지막 페이지의 굵은 글씨에 눈길이 멈춘다.

INSERT)「비밀 준수 조항」
‘본인이 앞으로 습득하게 될 모든 정보는 엄중히 기밀로 분류되며, 외부 누설 금지…’

(짧은 침묵)

종이를 긋는 소리. 모든 칸이 채워진다.

잠시 뒤, 김인호가 여직원에게 서류를 건넨다.
여직원이 서류를 확인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아래 버튼을 누른다.

‘슥-’
벽 한쪽이 미끄러지듯 열린다.
방진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난다.

남자 1 **“우선, 아이부터 모시겠습니다.”**

여직원 1 **“이제 아이는 별도 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검사 및 준비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내 (불안한 목소리)
“우리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여직원 1 (미소 지으며)
“부모님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이를 조심스레 이동용 침대에 눕히는 방진복 남자들.
하얀 시트 위에 놓인 아이의 창백한 얼굴.

여직원이 아이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속삭인다.

여직원 1 **“민수야, 엄마 아빠는 곧 따라올 거야.**

반응 없는 아이.
침대가 움직인다.

아버지의 손끝이 천천히 아이의 손에서 풀린다.
마지막 순간,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려는 손길이 허공에 매달리다 이내 공중에 남는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그러나 눈빛이 떨리고, 고개가 자꾸 아이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길어지며 따라간다.
김인호가 멀어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김인호 (속삭이듯)
“괜찮아… 금방 갈게.”

침대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다.
침대가 열린 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아이가 실루엣만 남기고 문 안으로 사라진다.

SLOW MOTION)
아버지의 손끝이 허공에 부유한 체 멈춰 있다.
아내의 고개는 점점 더 길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칙–*’ 문이 닫히며 아이의 마지막 그림자가 완전히 끊긴다.

여직원의 목소리,

여직원 1　　“이제, 안내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김인호 부부.
무거운 숨을 내쉰 뒤, 천천히 발걸음을 뗀다.
여직원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면,
길게 뻗은 복도.
차가운 회백색 합금 벽.
부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복도의 맨 끝, 작은 금속 문 앞에서 멈춰서는 여직원.

카메라가 문 위의 팻말을 확대한다.
‘Dr. Yoon.’

여직원, 벨을 누른다.

(잠깐의 정적)

‘딸깍.’
자물쇠가 풀리며, 문은 조용히 열린다.

33. DR. YOON 사무실 - 실내/아침

조도가 낮은 고급스러운 사무실.
유리 패널이 은은히 빛나고, 책장과 가구는 정갈하다.
벽면 스크린엔 복잡한 인체 그래픽이 떠 있다.
유전자 배열, 시냅스 네트워크가 교차하며 흐른다.
방 한가운데, 백색 가운의 중년 남성이 일어나 짧게 인사한다.

윤 정우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설계 프로토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윤정우의 손짓에 따라 자리에 앉는 김인호 부부.

윤정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이 전환되면,
나타나는 세 개의 아이 형상.
또렷한 윤곽, 각기 다른 표정이다.

윤정우 **“이건 ‘잠재 인격 구조체’ 입니다.**
방금 채취한 유전체와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의사 자아 모델이지요.”

카메라가 스크린 아래쪽의 텍스트를 확대하면,
첫 번째: 고지능 특화형
두 번째: 권력 적응형
세 번째: 집단 순응형

아내 **“…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요?”**

윤정우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정우가 리모컨을 누른다.
회면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 가지 인생 경로.

첫 번째 모델,
번쩍이는 뇌파 이미지와 함께 날카로운 눈빛.
고도의 집중력,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계산이 공존하는 얼굴.

두 번째 모델,
정장 차림의 인물.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표정, 단호한 제스처.
군중 속에서 권위를 얻는 모습.

세 번째 모델,
온화한 미소.
감정을 억제한 듯 고요한 얼굴.
타인에게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이를 지켜보는 부부의 얼굴.
점점 굳어간다.
보고서처럼 나열되는 아이의 미래에 분노한다.

그때 스크린에서 울리는 경고음.
'삐이이이- 삐이이이-'
스크린이 미세하게 떨린다.

윤정우 (긴장된 목소리)
"아이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면 접속 확률은 76%.
10분 후엔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인호 아내.
눈가에 맺힌 눈물.

아내 **"…우리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게 아니군요."**

윤정우 **"맞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 어딘가에서 존재할 겁니다."

PAN)
스크린이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전환된다.
투명 유리 너머, 아이가 하얀 천에 덮여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

스크린으로 다가가는 아내.
손바닥을 스크린에 댄다.

아내 (속삭임)
“사랑해… 미안해…
무슨 모습이든, 네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돼.”

천천히 눈을 감는 김인호.
숨소리가 거칠고 짧다.

‘삑… 삑…’
스크린에서 들리는 아이의 병실 심장 모니터음.
삑 사이의 간격이 점점 느리게 느껴진다.

민정의 떨리는 어깨.
그 순간 모니터음이 한 박자 길게 끊긴다.
김인호의 호흡을 멎는다.

윤정우 (마이크 스위치 누르며)
“시스템, 가동 준비.”

‘딸깍. 찰칵.’ 이어지는 전자음

순간,
스크린 속 아이가 누워있는 방.
희뿌연 백색 조명은 사라지며, 대신 자궁 속을 연상케 하는 붉은 빛이 감싼다.
침상 주변으로 반투명 막이 형성된다.
천장에서 얇은 필름 같은 장막이 서서히 내려와 경계를 만든다.
그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기계의 공명음.

기술자 (OFF) (스피커)
“접속 대기 상태 진입.
파동 간섭 허용 값: 2.17.
의식 업링크, 포트 초기화 완료.”

스크린속 한 줄기 빛이 아이의 머리 주변에 응집된다.
파동이 모이고, 빛이 일렁이며 공간을 뒤트는 듯하다.

윤정우가 스크린에서 시선을 거두고, 부부를 향한다.

윤정우 **“지금, 아이의 과거 존재와 연결되었습니다.**
곧 뇌 속의 기억 기억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의사 자아 모델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김인호는 침묵한다.
아내의 입술도 떨리다,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연다.

아내 **“세 모델 중 하나가 아니라…**
아이 그대로는 불가능한가요?”

윤정우가 멈칫한다.
잠시 뒤, 미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윤정우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편이 더 간단하지요.
기본 기억 모듈만 심으면…
1년 뒤의 사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접속 대신,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안에… 모든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내 **“그 아이,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윤정우의 시선이 김인호로 향한다.
묻는 듯한 눈빛. 당신도 동의합니까?
김인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윤정우가 마이크 버튼을 누른다.

윤정우 **“시작하세요. 모델 제로, 노멀 세팅.”**

스크린에는 세 개의 인격 모델이 사라지고, 세 살 시절의 아이 모습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난다.
윤정우, 부부를 향해 손짓한다.

윤정우　　“시스템 실로 가시지요.”

부부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른다.

제 3 부로 계속...)